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치의학석사학위논문

한국과 중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에 대한 만족도 비교 연구: Pilot Study

A comparison of career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between dental students in Korea and China: A
Pilot Study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조형호

초 록

연구 배경 및 목적

치과의사는 한국에서 공급과잉, 중국에서 공급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의 치과의사들이 중국으로 진출한다면 양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치과의사들이 중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치과의사들과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치과계나 치과의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치과계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은 치의학 교육제도부터 전반적인 문화까지 다르며 치과대학 학생들 개개인의 성향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다른 교육체계 안에 있는 중국과 한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 선택 이유’, ‘향후 진로’, ‘진로 만족도’, ‘교육 만족도’ 등에 관한 비교를 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치과의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중국 치과계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4학년과 베이징대학교 구강의과대학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진로와 치과대학 교육에 대하여 12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단순 도수분포표로 정리하였다.

실험결과 및 토의

치과의사를 진로로 선택한 이유로 한국학생들은 Work-life balance와 Stability를, 중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은 Help & Value와, Social status를 선택했다. 한국학생들은 주로 General dentist가 되길 원했고, 중국학생들은 주로 Specialist가 되길 원했다. 가장 선호하는 전공은 Orthodontics이며 Endodontics, Prosthodontics, Periodontics가 인기 있었다. 해외에서 근무하길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해외에서 근무하길 희망하지 않는 학

생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미국이다. 중국학생들이 한국학생들보다 치과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한국학생들은 불필요한 수업, 강의 등을 선택했고 중국학생들은 '너무 여유가 없이 바쁜 삶'을 선택했다. 다시 치과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한다.',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이고, 중국학생들은 '너무 힘들다', '다른 전공을 선택한다.'였다.

주요어 : 치과대학, 진로만족도, 교육과정, 교육만족도, 중국치과대학, 한국치과대학, 치과계

학 번 : 2013-22156

목 차

제 1 장 서 론.....	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
제 2 장 본 론.....	7
제2절 연구방법.....	7
제 3 장 결 론.....	11
제1절 연구결과.....	11
제2절 토의.....	16
제3절 결론.....	19
참고문헌.....	20
Abstract.....	2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치과의사는 지난 수 십 년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진 직업들 중 하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치과 의료에 대한 수요는 커졌지만 의료 인력 충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 했기 때문이다. 치과 의료 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 이후 치과대학이 많이 설립됐으며 이에 따라 매년 800명 이상의 신규 치과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20년 활동치과의사 수는 24,856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5년에 비해 44%가 상승한 수치이다[1]. 2010년을 기점으로 치과의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고, 2020년 이후에는 치과의사의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은 직업 영역을 이전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해외로의 진출 등 다양한 활로를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8년 381위안(약 6만원)이던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03년에는 10542위안(약 350만원), 2012년에는 30015위안(약 520만원)을 달성하였다[2]. 이는 1978년과 비교했을 때 16.2배 성장한 수치이며, 연평균 8.7%의 고성장을 지속한 것이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보고에 의하면 2016년 세계 각 국가의 GDP는 미국이 18조 달러로 세계 1위, 중국이 11조 달러로 세계 2위였다[3]. 현재는 그 성장세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G2라는 용어로 표현될 만큼 중국의 경제적 위상은 상승하여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을 겪으며 중국의 치과 의료는 수요가 늘었지만, 치과 의료 인력이나 자원은 그에 맞게 성장하지 못 하여 공급과 수요 사이에 불균등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45.27%의 성장을 보였으나 이를 충족할 만큼 많은 치과의사가

배출되지 못 한다는 보고가 있고[4], 또한 중국 내 고령 인구중 86.1%가 치아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5]. 이렇게 치과 의료에 대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으로 한국의 치과의사들이 진출한다면, 한국의 치과의사 공급 과잉 문제와 중국의 치과의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소위 한류라는 게 시작됐고,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아이돌 가수들에 의한 K-pop이 인기를 끌면서 ‘2차 한류’가 발생하였다[6]. 중국 역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이는 한국 화장품, 전자제품, 의류 등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높은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6]. 중국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나 한국 사람에 대한 우호도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어, 한국의 치과의사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치과 의사에 대한 수요가 많고, 한국인에 대한 우호도도 크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진출하기에 다른 국가보다도 중국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 치과의사가 중국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것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중국 내에서 외국인 의사는 중국인 의사와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봉급을 받으며 일해야 하고 혼자서는 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7]. 상하이에 지정된 경제 특구처럼 특정한 지역에서는 외국 치과의사가 혼자서 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있으나[7] 대부분의 경우 중국에서 치과의사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중국 치과의사들과 일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의 치과의사들은 중국 치과의사들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비교적 가까운 나라지만 전반적인 문화나 치과의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한국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치과의사들과 보다 좋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의 문화나 중국의 치과의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치과 분야에 대한 비교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치과의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중국의 치의학 교육제도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

하다.

중국의 치의학 교육제도는 구소련의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의 치의학 교육제도와는 다르다. 현재 중국에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포함하여 6 종류의 치의학 교육제도가 있다. 이중 일부는 점차 폐지되는 과정이기에 대부분의 치의학과 학생들은 5+3년제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있다[8]. 이중 5년은 한국의 2+4년제의 교육과정과 유사하여 4년의 기본교육을 거친 후 1년간 치과병원에서 과별 순회 실습을 하게 된다. 이후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여 3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전공의 과정과 유사하다.

이렇듯 중국과 한국의 치의학 교육제도가 다르고, 전반적인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치의학과 학생들의 성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다른 교육체계 안에 있는 중국과 한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 선택 이유’, ‘향후 진로’, ‘진로 만족도’, ‘교육 만족도’ 등에 관한 비교를 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치과의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중국 치과계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연구 방법

중국과 한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 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연구들에서 제시된 설문조사 문항을 수정 및 첨가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9][10][11].

치과대학 학생들이 치과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한 조사를 위해 ‘Help & Value’, ‘Money’, ‘Social status’, ‘Family’, ‘Stability’, ‘Work-life balance’ 항목을 제시하였다. ‘Help & Value’는 타인을 돕거나 가치 있는 일을 의미하고, ‘Money’는 금전적인 수입을 의미하고, ‘Social status’는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하고, ‘Family’는 가족과 관계된 요인을 의미하고 ‘Stability’는 직업의 안정성을 의미하고, ‘Work-life balance’는 일과 휴식 간의 균형을 의미한다. 각 학생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한 가지와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한 가지를 각각 선택하였다.

다음 문항은 전문의가 될 것인지, 일반의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General dentist’는 한국에서의 일반의와 중국에서의 5년 과정을 마친 경우를 의미한다. ‘Specialist’는 한국에서의 전문의와 중국에서의 5+3년제 과정 중 후반 3년 과정을 의미한다. ‘Researcher’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연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ducator’는 치의학 교육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이 문항과 관련하여 다음 문항은 희망하는 세부 전공에 대한 것이다.

다음 문항은 어떤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지에 대한 것이다. ‘University hospital’이란 대학에 속하거나 협력관계인 병원을 의미하고 ‘Community hospital’ 지역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적인 병원을 의미한다. ‘Scientific institute’는 연구에 집중하는 기관을 의미하고, ‘Private clinic’은 개인이 개원한 의원을 의미한다.

다음 문항은 외국에서 일하고 싶은지와 그 이유에 대한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지 적도록 하였고 그 이유를 ‘Money’, ‘Family’, ‘Social status’, ‘Work-life balance’, ‘stability’, ‘Others’ 중에 고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치과대학에서의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치과대학의 교육을 ‘강의’, ‘임상전단계 실습’, ‘임상 실습’으로 나누어 가장 불만족하는 1점에서 가장 만족하는 10점까지 범위 내에서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진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치과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여부와 진학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한국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4학년 학생들과 중국의 베이징대학교 구강의과대학 5학년 학생들이다. 기초 의학과 기본적인 임상 의학에 대한 수업을 이미 듣고 나서, 치과의사 면허를 얻기 전에 직접 환자를 보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중국의 치의학 교육제도에 의하면 베이징대학교 구강의과대학의 5학년은 4년간의 기초의학 수업을 마친 후 구강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보고 실습하는 학년이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4학년은 원내생으로서 직접 환자를 보고 실습하는 학년이다. 따라서 해당 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 학생들에게 이메일 통해 제공되었으며, 설문조사 문항은 영문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urvey: Research for differences of career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between dental students in China and Korea.

1) What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that you decided to become a dentist?

- (1) Help & Value (2) Money (3) Social status
- (4) Family (5) Stability (6) Work-life balance

2) What is the second important reason that you decided to become a dentist?

- (1) Help & Value (2) Money (3) Social status
- (4) Family (5) Stability (6) Work-life balance

3) What kind of dentis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 (1) General dentist (2) Specialist (3) Researcher (4) Educator (5) Others

4) If you have to chose a major, then what's your favorite?

()

5) What kind of work unit you prefer?

- (1) University hospital (2) Community hospital (3) Scientific institute
- (4) Private clinic

6) Would you like to work in a foreign country? If you would like to, where is there?

- (1) Yes, () (2) No

6-1) If you would like to work in a foreign country, what is the reason?

- (1) Money (2) Family (3) Social status
- (4) Work and life balance (5) Stability (6) Others

7) How much are you satisfied with educational program in your dental

school?

(worst)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best)

8) What are the main discontents with your curriculum?

(1) too tight (2) too loose (3) Needless courses (4) Teaching
(5) Clinical practice (6) Scientific capacity

9) Grade for the average effect of teaching in class

(worst)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best)

10) Grade for the average quality of practice of preclinical phase

(worst)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best)

11) Grade for the average quality of clinical practice

(worst)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best)

12) If you could go back in time, would you go to dental school again?

(1) Yes (2) No (3) Uncertain

12-1) If you select 'No' or 'Uncertain', what's the reason?

()

표 1 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 및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두 국가의 학생들 간의 진로와 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설문조사의 결과를 단순 도수분포표(simple frequency table)로 정리하였다.

제 3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4학년 학생 78명 중 45명이 응답하였고 베이징대학교 구강의과대학 5학년 학생 60명 중 2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응답률은 한국학생은 57.6% (45/78), 중국학생은 46.6% (28/60) 이었다.

설문조사 항목		한국 학생 (n=45)	중국 학생 (n=28)
1) What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that you decided to become a dentist?	Help & Value	4 (8.9%)	16 (57.1%)
	Money	5 (11.1%)	0 (0.0%)
	Social stauts	3 (6.7%)	1 (3.5%)
	Family	5 (11.1%)	4 (14.2%)
	Stability	12 (26.7%)	4 (14.2%)
	Work-life balance	16 (35.6%)	3 (10.7%)
2) What is the second important reason that you decided to become a dentist?	Help & Value	9 (20%)	1 (3.5%)
	Money	8 (17.8%)	6 (21.4%)
	Social stauts	4 (8.9%)	8 (28.5%)
	Family	1 (2.2%)	3 (10.7%)
	Stability	11 (24.4%)	6 (21.4%)
	Work-life balance	12 (26.7%)	4 (14.2%)
3) What kind of dentis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General dentist	27 (60.0%)	8 (28.5%)
	Specialist	14 (31.1%)	19 (67.8%)
	Researcher	0 (0.0%)	0 (0.0%)
	Educator	3 (6.7%)	0 (0.0%)
	Others	1 (2.2%)	1 (3.5%)
4) If you have to chose a major, then what's your favorite?	Orthodontics	9 (31.0%)	6 (24.0%)
	OMFS	4 (13.7%)	2 (8.0%)
	Endodonctics	6 (20.6%)	3 (12.0%)
	Prosthodontics	4 (13.7%)	4 (16.0%)

	Periodontics Pedodontics OM Radiology Oral Medicine	1 (3.4%) 1 (3.4%) 0 (0.0%)	5 (20.0%) 0 (0.0%) 1 (4.0%)
5) What kind of work unit you prefer?	University hospital Community hospital Scientific institute Private clinic	7 (15.6%) 4 (8.9%) 1 (2.2%) 33 (73.3%)	21 (75.0%) 2 (7.1%) 0 (0.0%) 5 (17.8%)
6) Would you like to work in a foreign country? If you would like to, where is there?	Yes America South Korea China Canada Japan Europe Australia Singapore Hongkong No	29 (64.4%) 15 (51.7%) - 3 (10.3%) 2 (6.8%) 2 (6.8%) 3 (10.3%) 0 (0.0%) 2 (6.8%) 2 (6.8%) 16 (35.5%)	21 (75.0%) 11 (52.3%) 3 (14.2%) - 0 (0.0%) 3 (14.2%) 2 (9.5%) 1 (4.8%) 1 (4.8%) 0 (0.0%) 7 (25.0%)
6-1) If you would like to work in a foreign country, what is the reason?	Money Family Social status Work and life balance Stability Others	10 (33.3%) 1 (3.3%) 1 (3.3%) 8 (26.7%) 0 (0.0%) 10 (33.3%)	7 (29.1%) 3 (12.5%) 5 (20.8%) 6 (25.0%) 1 (4.2%) 2 (8.4%)
7) How much are you satisfied with educational program in your dental school?		4.97	7.7
8) What are the main discontents with your curriculum?	too tight too loose needless courses teaching clinical practice	2 (5.1%) 0 (0.0%) 23 (59.0%) 8 (20.5%) 6 (15.4%)	13 (43.3%) 1 (3.3%) 4 (13.3%) 4 (13.3%) 0 (0.0%)

	scientific capacity	0 (0.0%)	8 (27.0%)
9) Grade for the average effect of teaching in class		4.83	7.4
10) Grade for the average quality of practice of preclinical phase		5.27	7.8
11) Grade for the average quality of clinical practice		4.63	8.5
12) If you could go back in time, would you go to dental school again?	Yes No Uncertain	26 (57.8%) 8 (17.8%) 11 (24.4%)	15 (53.5%) 4 (14.2%) 9 (32.1%)
12-1) If you select 'No' or 'Uncertain', what's the reason?	too tired too long cost bad education evn. other major go to medical sch. not my aptitude others	2 (11.1%) 3 (16.6%) 1 (5.5%) 3 (16.6%) 2 (11.1%) 4 (22.2%) 2 (11.1%) 1 (5.5%)	4 (30.7%) 1 (7.6%) 2 (15.3%) 0 (0.0%) 4 (30.7%) 0 (0.0%) 1 (7.6%) 1 (7.6%)

표 2 한국과 중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에 대한 만족도 비교

치과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한국학생들은 Work-life balance(16명, 35.6%)를 중국학생들은 Help & Value (16명, 57.1%)를 선택했다. 치과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로 한국학생들은 Stability(11명, 24.4%)를 중국학생들은 Social status(8명, 28.5%)를 선택했다. 한국 학생들은 Work-life balance, Stability, Money, Help & Value 순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반면, 중국 학생들은 Help & Value, Social status, Stability, Money 순이었다.

일반의, 전문의, 연구자, 교육자 등 어떤 치과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으로 한국학생들은 27명(60%)이 General dentist를 14명(31.1%)

이 Specialist를 선택했고. 중국학생들은 8명(28.5%)이 General dentist를 19명(67.8%)이 Specialist를 선택하여 전문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전공은 한국학생들은 Orthodontics가 9명(31%), Endodontics가 6명(20.6%), OMFA, Prosthodontics, Periodontics가 각각 4명(13.7%)이었고, 중국학생들은 Orthodontics가 6명(24%), Pedodontics가 5명(20%), Prosthodontics, Periodontics가 각각 4명(16%), Endodontics가 3명(12%)이었다. 한국학생과 중국학생 모두 Orthodontics를 가장 선호했고 Endodontics, Prosthodontics, Periodontics에 대한 선호는 비슷했다. Pedodontics는 한국학생(1명, 3.4%)들보다 중국학생(5명, 20%)들이, OMFS는 중국학생(2명, 8.0%)들보다 한국학생(4명, 13.7%)들이 선호했다.

선호하는 근무기관은 한국학생들은 Private clinic을 33명(73.3%)이 선택했고, 중국학생들은 University hospital를 21명(75%)이 선택하였다.

외국에서 치과의로사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학생들은 29명(64.4%)이, 중국학생들은 21명(75.0%)이 Yes로 대답하였다. Yes라고 대답한 학생들 중에서 한국학생들은 15명(51.7%)이, 중국학생들은 11명(52.3%)이 미국을 일하고 싶은 지역으로 답했다. Yes라고 대답한 한국학생 중에서 중국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은 3명(10.3%)이었고, Yes라고 대답한 중국학생 중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은 3명(14.2%)이었다. 그 외에 Europe, Japan이 공통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이었다. 외국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한국학생들은 Money(10명, 33.3%), Others(10명, 33.3%)를 선택했고, 중국학생들은 Moeny(7명, 29.1%), Work-life balance(6명, 25.0%)를 선택했다. 한국학생들은 Family와 Social status를 선택한 학생이 1명(3.3%)이었지만 중국학생들은 각각 3명(12.5%), 5명(20.8%)이었다.

치과대학에서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1~10점까지 점수를 매겼을 때 한국학생들은 평균점수는 4.97, 중국학생들의 평균점수는 7.7 였다. 교육프로그램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한국학생들은 needless

course(23명, 59.0%), teaching(8명, 20.5%), clinical practice(6명, 15.4%)를, 중국학생들은 too tight(13명, 43.3%), scientific capacity(8명, 27.0%)를 선택하였다.

강의의 효과에 대한 평균점수는 한국학생들은 4.83, 중국학생들은 7.4이고, 임상 전단계 실습의 질에 대한 평균점수는 한국학생들은 5.27, 중국학생들은 7.8이고, 임상 실습의 질에 대한 평균점수는 한국학생들은 4.63, 중국학생들은 8.5이다.

과거로 돌아갔을 때 다시 치과대학에 입학하겠다고 대답한 한국학생은 26명(57.8%) 중국학생은 15명(53.5%)이고, 다시 입학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한국학생은 8명(17.8%) 중국학생은 4명(14.2%)이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한국학생은 11명(24.4%), 중국학생은 9명(32.1%)이었다. 다시 선택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이유로 한국학생들은 의대를 진학한다(4명, 22.2%), 교육환경 및 분위기가 좋지 않다(3명, 16.6%), 교육과정의 길이 너무 길다(3명, 16.6%)를 선택하였고 중국학생들은 너무 지친다(4명, 30.7%), 다른 전공을 선택한다(4명, 30.7%), 비용이 비싸다(2명, 15.3%)를 선택하였다.

제 2 절 토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이 치과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가 다르다. 한국학생들은 Work-life balance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중국학생들은 Help & Value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에서는 치과의사가 Work-life balance가 좋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Work-life balance를 중요시하는 성향의 학생들이 치과대학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국보다 중국의 학생들이 Help & Value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치과의사가 아닌 다른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 Help & Value를 중요시하는 학생의 비율도 높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치과대학이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 중 하나이지만 중국에서는 중간 정도의 인기를 갖는다고 한다. 이는 중국에서의 치과의사들의 Work-life balance 및 수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치과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학생들은 60%가 일반의를 희망하고, 중국학생들은 67.8%가 전문의를 희망한다. 한국과 중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의 일반의와 전문의에 대한 선호도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중국에서의 치의학 교육제도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주로 학·석·박사 통합과정인 5+3년제로 치과대학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한 학년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학생은 5년의 일반의 과정을 거친 후 자연스럽게 전공을 선택한 후 수련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된다. 중국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근무형태가 주로 University hospital인 것도 전문의를 선호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로서 전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학생들이 선호하는 근무형태가 Private clinic인 이유는 중국과는 다른 한국의 치과 의료체계 때문일 수 있다. 한국에서 치과 의료는 Private clinic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Private clinic을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 보상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는 다르게 중국의 학생들은 Private clinic을 운영하기에는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개원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University hospital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생들과 중국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다. 해외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해외 지역은 거의 미국이었는데, 이는 미국의 치과 의료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미국에서의 치과의사는 비교적 근무 시간이 적으면서 수입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이 근무하고 싶은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다른 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았다. 이는 미국 외 지역의 치과의사의 직업적 환경이 실제로 미국보다 좋지 않아서 대다수의 학생이 미국을 선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미국의 치과의사에 대한 정보만큼이나 다른 지역의 치과의사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학생들의 관심밖에는 있을 것일 수도 있다.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치과대학에서 이뤄지는 강의, 임상전단계 실습, 임상 실습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중국의 학생들이 한국의 학생들에 비해 크게 높은 점수로 답하였다. 실제로 만족도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국외의 다른 대학과 비교하는 설문조사에서 중국학생들이 자신의 대학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평가 점수에서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기 보다는 같은 대학의 평가항목 간의 수치를 비교하려고 한다. 중국학생들은 강의나 임상전단계 실습보다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높다. 이는 수평적인 병원문화, 임상 실습할 수 있는 충분한 환자수, 환자들의 협조적인 자세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생들은 임상전단계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이는 임상 실습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적고, 기간이나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대신 임상전단계 실습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치과대학의 교육을 개선한다면 임상 전단계 실습이나 강의보다 임상 실

습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국 치과대학의 교육을 개선한다면 임상 실습보다 강의나 임상전단계 실습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학생들이 치과대학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필요한 수업이고, 중국 학생들이 치과대학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과도한 학업량이었다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치과대학에 진학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한국과 중국학생들 모두 과반수를 약간 넘는다. 한국학생들은 이에 대한 이유로 '의대에 진학한다',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로 답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의대나 치대로의 진학 준비과정이 유사하고 입학에 위한 학업 성적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의 학생들은 '너무 지친다', '다른 전공을 선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들의 진로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와 같은 의견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결론

치과의사를 진로로 선택한 이유로 한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은 Work-life balance와 Stability를, 중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은 Help & Value와, Social status를 꼽았다. 장래 계획에 있어서, 한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은 주로 General dentist가 되길 원했고, 중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은 주로 Specialist가 되길 원했다. 치과대학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Orthodontics이었으며 대체로 Endodontics, Prosthodontics, Periodontics가 인기 있었고 Pedodontics는 한국보다 중국에서, OMFS는 중국보다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다. 해외에서 근무하길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해외에서 근무하길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보다 높았다. 해외에서 근무하길 희망하는 이유는 Money, Work-life balance, Social status 등이며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미국이다. 치과대학 교육에 만족하는 정도를 10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중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이 한국의 치과대학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한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은 불필요한 수업, 강의 등을 선택했고 중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은 ‘너무 여유가 없이 바쁜 삶’으로 선택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치과대학에 진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다시 치과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한다.’,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였고 중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은 ‘너무 힘들다’, ‘다른 전공을 선택한다.’였다.

참 고 문 헌

[1] 신호성, 홍수연. (2007.6). 치과의사 인력 현황 및 수급 예측. 보건사회연구, 27(1), 81-102.

[2] 이준삼 (2013. 11. 07). 中통계국 "개혁·개방후 1인당 GDP 16배 증가".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584700> 에서 검색

[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16). World Economic Outlook Data: October 2016 Edition, Washington DC.

[4] Research and markets adds report: Dental implants market in china 2012-2016. (2013). Health & Beauty Close - Up, Retrieved from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442551219?accountid=6802>

[5] Research and markets; dental implants market in china 2016-2020 - 86.1% of older population in china suffering from tooth loss - research and markets. (2016). Health & Medicine Week, 86. Retrieved from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767978444?accountid=6802>

[6] 김주연, 안경모. (2012.5). 중국에서의 한류콘텐츠 선호가 한국상품 구매, 한국방문 및 한글학습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5), 447-458.

[7] Zhou Qian(2015. 4. 9). Setting Up a Dental Clinic in China. *China Briefing*. Retrieved from <http://www.china-briefing.com/news/2015/04/09/setting-up-a-dental-clinic-in-china.html>

[8] Zheng, J. W., Zhang, S. Y., Yang, C., Guo, L., Shen, G. F., Feng, X. P., ... & Zhang, Z. Y. (2013). Current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Dental Education in China. *Journal of Dental Education*, 77(1), 72-78.

[9] Yan, X., Zhang, X., Jinno, Y., Tachibana, K., Gao, J., Koyano, K., & ... Shen, Y. (2014). Career choice and future design of dental students in China and Japan.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64(2), 68-75. doi:10.1111/idj.12064

[10] Yan, X., Yi, Z., Wang, X., Jinno, Y., Zhang, X., Koyano, K., & Ai, H. (2015). Different study conditions between dental students in China and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Medicine*, 8(7), 11396 - 11403.

[11] 최현주. (2012.06). 방송작가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 연구. *언론과학 연구*, 12(2), 572-602.

Abstract

Introduction

Dentists are provided too much in Korea, too less in China. If Korean dentists get a job in China, it will be helpful to solve the problems of both countries. Because it's necessary for Korean dentists to cooperate with Chinese dentists, they need to know about Chinese dental society and Chinese dentists. But, related researches have not been studied enough yet. This study compares career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of Korean and Chinese dental school students. Based on it, they can understand more about Chinese dentists and dental society.

Methods

For this study, survey was conducted by e-mails to fourth year studen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fifth year students in Peking University School of Stomatology.

Results and Discussion

For reason to decide to become a dentist, Korean students chose 'Work-life balance' and 'Stability', however Chinese students chose 'Help & Value' and 'Social status'.

Korean students wanted to be a general dentist, but Chinese students wanted to be a specialist.

Most preferred specialty is 'Orthodontics' in both countries. 'Endodontics' and 'Prosthodontics' are also preferred.

The rate of the students who wanted to work abroad was higher than those who don't want. America was most preferred region to work.

Chinese students gave higher grades to educational satisfaction

than korean students.

Keywords : Dental school, Career satisfaction, Curriculum,
Educational satisfaction, Chinese dental school,
Korean dental school, Dental society.

Student Number : 2013-22156